



주말이슈 | 15일 스즈키컵 결승 최종전...베트남이 뒤집어지는 날

‘변방’의 박항서는 어떻게 베트남의 영웅으로 났나

AFC U-23 준우승·AG 4강 이어 스즈키컵 우승 눈앞
1년여 만에 ‘그저 그런 팀’을 ‘아시아의 용’으로 조련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외국인이다. 축구 변방 베트남을 이끌며 아시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 명의 축구 지도자는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크게 바꿨다. 박 감독은 15일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 우승에 도전한다. 사진 | AP 뉴시스

코브라 전술

파리 틀 듯 강한 압박 후 빠른 역습
선수 특징 손바닥에...용병술 뛰어났다

형님 리더십

다친 제자 마사지·비즈니스석 양보
음식메뉴에도 가족 돌보듯 신경 써

준비된 사령탑

‘이기는 자가 강하다’ 정신무장 강조
선수 리듬·컨디션 등 훈련계획 촘촘

베트남 축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팀이었다. 약체 이미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해봐도 동남아시아의 다크호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제는 다르다. 베트남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항서(59)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급격하게 성장했다. 위상도 올라갔다.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아시아 강호로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2018년, 베트남의 퍼포먼스는 실로 대단했다. 신년벽두부터 아시아를 뜨겁게 달궜다. 1월 중국에서 개최된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깜짝 준우승을 차지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공교롭게도 한국 U-23 대표팀의 부진과 맞물리면서 베트남 축구의 도전은 더욱 큰 스포

트라이트를 받았다.

8월 2018지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도 베트남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 사상 첫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박항서 감독의 절친 김학범(58) 감독이 이끄는 한국에 무릎을 꿇어 전진이 멈춰버렸으나 최선을 다한 베트남 전사들은 울지 않았다.

대미를 장식할 무대는 15일(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릴 말레이시아와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이다. 11일 팔라렐푸르에서 펼쳐진 원정 1차전에서 2-2로 비겼기 때문에 베트남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원정 다 득점 원칙에 따라 0-0 혹은 1-1로 비겨도 정상에 선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박항서

▲생년월일=1959년 1월 4일 ▲출신교=경신고~한양대 ▲선수 경력=제일은행(1981년) 육군 중의(1981~1983년) 럭키금성 황소(1984~1988년) ▲코치 경력=LG 치타스(1989~1996년) 수원삼성 2군 코치(1997~1999년) 한일월드컵대표팀 수석코치(2000~2002년) 포항 스틸러스 수석코치(2003년) ▲감독 경력=부산아시안게임 감독(2002년) 경남FC 감독(2005~2007년) 전남 드래곤즈 감독(2008~2010년) 상주상무 감독(2012~2015년) 창원시청 감독(2016~2017년) 베트남대표팀 감독(2017~현재) ▲수상 경력=체육훈장 맹호장(2002년)

이름발 vs 제구력 vs 구속...KBO리그 달굴 새 외인들을 소개합니다 ▶ 8면

전반전은 2018년·후반전은 2019년...파격의 '농구영신 매치' ▶ 10면

접지력·내구성을 모두 잡았다
거침없는 이빨을 드러내라발목까지 차오르는 눈길도 뱅뱅길도 거침없다!
한겨울, 나를 견제 하는 신발출근길엔 신사화 퇴근길엔 등산화 2탄!
털부츠부터 신사화, 등산화까지 '3in1'

히트상품 에어크로스 오버 신사화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더욱 참신하고 가성비 높은 겨울아이템 2탄을 선보인다. 올겨울에도 대세인 '크로스오버 신발' 스타일의 '크로스 털부츠'는 카멜레온처럼 적응성이 뛰어나다. 크로스 털부츠는 출근길 '방한 털부츠'부터 연말모임 '격식 신사화', 퇴근길 '기능성 등산화'까지 모두 연출 가능한 겨울철 만능아이템이다.

‘크로스오버 털부츠’
일반 부츠의 경계를 넘어섰다빙판길도 미끄러지지 않고,
충격흡수가 뛰어난 밑창

브라운

기획특가
69,000원세련된 '스타일'에 '보온성'과 '접지력'까지
가성비 만점 '크로스 털부츠'

마음에 확 끌리는 '겨울용 부츠'를 고르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보온성'을 생각하면 신발이 투박해지면서 멋이 없어지며,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생각하다 보면 보온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이다. '크로스 털부츠'는 보온성과 멋을 동시에 잡은 겨울용 털부츠다. 정성을 다해만든 반수제화 상품으로 발등과 뒤꿈치부분은 한 뼘 한 뼘 손으로 바느질한 듯한 스티치 라인을 넣어 입 체감을 살리면서도 세련미가 넘친다. 밑창은 무려 3.5cm 높이의 내구성 좋은 '통고무 리버창'으로 엔간해서는 미끄러지지 않는다. 폭신폭신한 '인솔'은 제주의 압력을 흡수하고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편안하다. 1.5cm 높이의 '인솔'은 밑창과 함께 5cm의 키높이 효과까지 준다. 갑피부분은 고급 '인조가죽'으로 오염과 내구성이 강해 관리가 편하며, 외부충격이 많은 갑피의 앞코부분은 탄탄한 '천연소가죽'을 사용, 돌부리에 부딪혀도 쉽게 까이지 않는다. '지퍼'를 사용하여 신고 벗기 편하며, 발목부터 발끝까지 후끈후끈 '보아털'로 가득 덮여있어 혹한의 추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다.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는 '크로스 털부츠'는 가격마저 착해 가성비 좋은 상품이다.

발목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보아털

블랙

제품명 크로스 털부츠 사이즈 245, 250, 255, 260, 265, 270, 275, 280
할인특가 1컬레 ₩119,000 → ₩69,000 2컬레 ₩130,000 색상 브라운, 블랙
제품신청 1588-9440 쇼핑몰 www.dasim.co.kr
계좌번호 국민 065901-04-127347 (주)다심,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능